

## 기획



## '버스기사 vs 학생' 소통 간담회 열려

국제캠퍼스 버스기사·학생 갈등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학생들과 버스기사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학생회X버스기사님 소통의 간담회'가 지난 25일 열렸다. 총학생회(총학)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버스기사 육설 문제 ▲교내 버스 탑승 질서 문제 등에 대해 총학, 학교, 버스업체의 3자 대면이 이뤄졌다. 버스업체 측에서는 경기대원고속 직원 2명, 용남고속 직원 4명이 참석했고, 학교 측에서는 총무팀 직원 2명, 학생지원처 직원 1명, 총학생회에서는 3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우리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최근 교내 버스 기사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페이스북에는 버스기사가 외국어대학 정류장에서 전화를 하며 올라온 학생에게 '버릇이 없다'며 다시 내리고 다시 타게 한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었다. 또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승차하는 학생들을 '무임승차 범죄자' 취급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총학 김건우(전자·전파공학 2011) 대외협력처장은 "최근에 버스기사님들과 학생들 간의 탑승관련 갈등이 빚어져 기사님들 및 버스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자리 마련했다"

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고 이후 학내 탑승 질서 문제와 인식차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버스업체 측에서는 입을 모아 탑승과정에서 무질서 때문에 운행 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M5107 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대원고속 주태무 팀장은 "학생들이 탑승과정에서 무질서하게 버스를 타려고 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버스 운행에 애를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총학 측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에는 동의했다. 총학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부회장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버스를 탑승하다보니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은 "현재 아침에만 한 줄 서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점심시간에도 한 줄 서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버스기사들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부회장은 "학교가 버스업체에 차고지를 제공하면서 학내 운행을 학생들의 권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5100번 버스를 운영하는 용남고속 이영식 팀장은 "학생들 중에는 학교가 업체에 차고지를 무료로 내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업체는 현재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버스를 운행 중에 있

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버스가 차고지에서 출발할 때 1~2분이 지연되면 서울에서는 10분 이상 늦어진다"며 학생들에게 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한 줄서기 외에 교내 버스정류장의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도 논의됐다. 용남고속 이 팀장은 "학생들의 무질서한 부분은 의식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관련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 생각된다"며 "훈련한 시간대에 2줄로 나눠 탑승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해 욕설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지원처 김종민 계장은 "학생들이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욕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버스업체 측도 이에 동의했고, 용남고속 이 팀장은 "학생들 불만만 수렴할 것이 아니라 버스기사들의 불만도 확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하기 위해 본사에서 나온 용남고속 사업부 이종규 부장은 "문제의 원인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학생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버스기사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종합한 2차 간담회는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 인류에게 미래가 있는가?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특별 강연회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서울】 지난 28일, 서울캠퍸스 평화의 전당에서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답하고 위대한 질문>의 저자,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 교수의 특별 강연회가 개최됐다. 인류 전체의 위기라 불리는 여러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의 미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위기에 처한 현재의 문명을 지속 가능한 문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현재 우리 대학과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는 '세계 지성에게 묻는다: 문명전환과 아시아의 미래' 강좌시리즈를 공동준비하고 있다. <사피엔스>를 통해 '인류에게 미래가 있는가?'를 묻고 답하는 유발 하라리 교수는 강좌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 순서에 배치된 이유다.



를 휘두르며 앞으로만 내달리고 있을 때이다. 그는 작금의 시대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생태계 전체를 돌보는 것, 진정한 행복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임을 강조하며 1부를 끝냈다.

이어진 2부는 김민웅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보았으며, 이택광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김윤정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수석연구원으로 이뤄진 3명의 패널과 유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답으로 꾸려졌다. 이들이 던진 여러 질의 중 정치와 교육문제에 관한 것이 유독 두드러졌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작금의 정치구조는 산업사회에 대응으로 나타난 20세기의 유산일 뿐"이라며 "21세기의 바이오기술이나 인공지능,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가 미국 대선 후보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의 문제들은 어떤 특정 나라가 단독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며 지구상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할 수 있는 '지구적 정부'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교육문제에 대해 "정답"만을 쫓는 교육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게 할 뿐이며 이는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90%가 미래에는 쓸모없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청중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2040년의 미래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스스로 계속 배워나가는 재발견과 재탄생의 능력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좀 더 휴식하고 좀 더 노는 것이 '정답'을 아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지성에게 묻는다: 문명전환과 아시아의 미래' 프로젝트의 추후 강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5월 말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진정한 행복 위해선

물리적 요인보다 '내면'이 중요

또한 그는 공학 기술의 발달이 곧 다가올 미래 인류의 지적, 정서적 능력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 긍정한 한편, 역사상 현 인류만큼이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세대가 또 없을 거라는 식의 우려를 드러냈다. 그에 따르면 현 인류는 창조와 파괴의 권능을 지닌 소위 신적 존재가 됐지만, 스스로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신적 지위만을 지키기 위해 사피엔스종 이외의 지구 생명체에게 흉기

### 2016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2016년도 국제캠퍼스 예비군 기본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요

가.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지원 중 1~6년차 예비군 전원  
나. 훈련장소 : 울산시 예비군훈련장·울산시 친구구 운학동 부동로 87 / 55사단 172연대 3대대)  
다.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5월27(금)	○ 국제대학 ○ 국제·경영대학 ○ 응용과학대학	
5월30(월)	○ 체육대학	
5월31(화)	○ 생명과학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6월1(수)	○ 동서의과대학 ○ 전자정보대학	0900 ~ 1800
6월2(목)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6월3(금)	○ 공과대학 : 건축공학, 건축학과, 시설기반시스템공학, 산업경영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환경학및환경공학 ○ 특수대학원교육, 이트퓨전, 테크노경영	
6월10(금)	○ 교육원 ○ 외국어 대학 ○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국제, 동서의학, 체육)	

\* 개인별 대상자 명부는 훈련 2주 전에 대학(원별 학과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서 확인

####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헬멧, 고무장) 예비군 규정대로 착용할 것을 청탁합니다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입소불가

#### 3. 교통

가. 대학원 차량(인대 버스)을 감염 및 국제캠퍼스 정문 앞 2곳에서 운용  
1) 강남역 : 7번 출구 전방 200m(6번 출구 후방 50m) 우리은행 365코너 앞에서 07:40 출발  
2) 국제캠퍼스 : 학교 정문에서 07:50 출발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치에 도착

#### 4. 유의사항

가. 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자는 임의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 연대본부에 확인하여 대상자명단에 포함 후 훈련에 참가하여야 훈련이 유효함

나. 개인 시물보관함에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귀중품(시계, 금전, 반지 등)은 보관하지 말 것(분실시 개인 책임을 명심할 것)

다. 대학학과별 훈련일정은 훈련부대의 수용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훈련일자 변경은 절대 불가함.

라.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자는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훈련 또는 전국

단위별 훈련을 신청하여 훈련을 이수하거나 훈련여부 신청(관련서류 첨부)을 허가 할 것

라. '6년 훈련 시 입소통제 치감' : 09:00이후 도착자는 입소불가 항목, 훈련은 무단불찰 처리됨.

마.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 2016학년도 2학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 석·박사 과정

1. 모집 분야 : 국제통상법학과 / 국제개발법학과 / 국제경영학과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0명 (국제개발협력학과에 포함)

#### 3.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4. 전형방법

국내외 각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턴(40%), 영어작문서(20%)

해외각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턴(60%)

※ 해외각주 지원자 지원부서 : 인터뷰부서

※ 해외각주 지원부